

1 개요

우렁이 신씨조상본풀이는 제주시 외도동 우렁이 마을 신씨 집안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신씨 집안의 조상은 본래 가난하였으나 부자인 홍씨 집안의 사위가 되어 잘 살게 되었는데, 다시 가시리 강당장 따님과 연분을 맺어 얻어온 곡식에 따라온 뱀을 칠성으로 모셔 잘 살았다.

2 내용

옛날에 홍괄호라는 벼슬을 가진 하르방이 있었다. 홍괄호는 홍목사가 제주도에 도임하여 기생첩을 두어 낳은 아들이었다. 홍괄호는 이상굴 위 높은믄를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살면서 장가를 가고 딸을 낳아 살았다.

뒤에 홍목사 조카가 다시 제주 목사로 내려왔다. 조카는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홍목사의 부탁을 받은 터였다. 홍목사는 순력을 돌다가 이상굴 높은믄에 이르니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다. 급히 천막을 치고 비를 피하는데, 옆의 초막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사령을 시켜 알아보니, 홍괄호가 사는 집이었다. 목사가 다음날 홍괄호를 관덕정으로 오라고 하였다.

홍괄호가 관덕정에 들어가려는데 문지기들이 행색을 보고 붙잡았다. 문지기가 목사에게 확인한 뒤에야 겨우 안으로 들어갔다. 홍목사가 의복과 음식을 내주며 이례를 머물게 하였다. 그 사이에 홍목사는 관속들을 시켜 홍괄호의 집을 짓고 식량을 광에 채워 주었다. 이렇게 하여 홍괄호는 부자로 살게 되었다.

홍괄호의 딸이 열다섯을 넘어가니, 키가 크고 힘도 세어 당할 사내가 없어서 시집을 못갔다. 가난한 신첩 하르방이 홍괄호의 딸에게 장가들기로 마음 먹었다. 홍괄호 따님아기가 신첩 시댁에 가서 사는 형편을 살피더니 도로 친정으로 돌아가 외손봉사를 하였다. 외손봉사로 내려오는 신첩의 전승이 계속 이어져 조상들을 위하면서 부자로 잘 살았다.

신첩 하르방이 걸시오름에서 밭을 갈다가, 정의 가시리 강당장 따님아기가 남편 병구완을 위해 대정으로 약을 지으러 가는 모습을 보았다. 신첩 하르방은 강당장 따님아기의 얼굴에 반하여 뒤쫓았다. 신첩 하르방이 강당장 따님아기에게 자신이 따라온 이유를 말하니, 강당장 따님아기는 하르방을 막산이구석으로 데려가서 큰 나무 사이에 올려놓고 나뭇

가지를 꺾어 그 사이에 가둬 놓고 가버렸다. 강당장 따님아기는 길을 가다 만난 어떤 남자에게 신칩 하르방을 살려 놓고 가라고 당부하였다. 덕분에 신칩 하르방은 간신히 나무에서 빠져나와 밭으로 가보니, 이미 소는 없어지고 쟁기도 부서져 있었다.

강당장 따님아기가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갔으나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다. 신칩 하르방은 포목장사를 하러 마을마다 돌아다니다가 가시리에 이르러 강당장 따님아기를 만났다. 신칩 하르방은 강당장 따님 집에 들어가 짐을 풀고 언약을 맺었다.

하루 이틀 뒤, 강당장 따님아기가 신칩 하르방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말 아홉 소 아홉에 곡식을 잔뜩 실고 가도록 하였다. 신칩 하르방이 집에 가니 딸들이 곡식을 헤아리다가 마대(麻袋)에 뱀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뱀을 칠성(七星)으로 모셨는데, 그 뒤로 부자로 잘 살았다.

3 특징

양창보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신씨 집안이 부자로 살게 된 내력을 여러 가지 사례를 엮어가면서 풀이하고 있다. 마음에 든 처녀에게 접근하였다가 오히려 힘으로 제압당하였는데 다시 그 처녀와 맺어지는 사례는 금악본향당본풀이와 같은 데서도 확인된다.

한편 곡식에 칠성이 따라와 부자가 되게 해주었다고 하는 대목은 고팡을 지키는 뱀신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강당장 따님아기가 모든 것을 내어준 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핵심어

홍괄호, 홍목사, 이싱굴, 높은믄를, 가시리, 강당장 따님아기, 칠성(七星), 외도동, 우렁이 마을, 신칩 하르방, 소, 곡식

5 원전 서지사항

우렁이 신씨조상본풀이(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6 관련 자료